

# 중국의 일대일로 10년의 평가와 전망: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조정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본고는 중국이 일대일로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고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자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러시아, 유럽으로 진출하는 서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필요한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산업에너지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자국 기업들의 국내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해외 진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자본,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자국에 부족한 산업 생산 설비,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부터 중국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자국의 산업 기반 및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했던 카자흐스탄이 제조업, 농업, 광업,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타지키스탄은 광업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키르기스스탄은 광업, 국내 전력망 구축을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 외에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나 2023년부터 자국의 발전 전략인 실크로드 부흥과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환경오염, 민간의 반중 정서 대두,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채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자국의 강력한 독재 정치로 인하여 민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향후 중국에 대한 협력의 강도와 중국의 영향력은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출로 국부를 축적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존하는 최고 지도자인 베르디무하메도프가 특정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게 천연가스 수출 외에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분야에서 자국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중국이 서방 선진국들이나 러시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중국, 중앙아시아, 산업에너지협력, 사회간접자본, 교통물류 네트워크, 에너지 네트워크, 경제적 영향력

\* 이 연구는 2023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I. 서론

중국이 글로벌 차원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를 추진한 지 10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대일로의 시작과 확장의 거점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국이 2015년에 일대일로 관련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일대일로의 추진을 공식화할 때는 일대일로는 중국이 서부 국경 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서진 전략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지역 전략은 서진 전략,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전략으로서의 성격은 부각되지 않았고 서부 국경 지역 안보와 신장의 소수 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2001년 6월 15일에 만든 상하이협력기구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가와시마 신·모리 가즈코, 2013: 253). 상하이협력기구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보다는 반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한 회원국 간의 공조가 더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상하이협력기구 비회원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가별로 특화된 투자,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07년 9월 중국과 중앙아시아 6개국은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에 합의하였는데 이 계획은 잠정적으로 총 192억 달러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18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장규호, 2007: A12). 이와 함께 중국의 원유, 가스에 대한 중동 의존도 감소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을 통해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중국 신장의 1기 가스관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고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지선을 개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네트워크 부족을 해결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까지

병행하여 러시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 경제협력의 패턴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은 2013년 9월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통망을 연결해 러시아, 발트해와 태평양까지 진출할 수 있는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제안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김영진·윤성학, 2019: 28).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이 나온 지 1년여가 지난 후인 2015년 3월에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은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위한 전망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이하 전망과 행동), 국제 산업 에너지, 장비 제조 협력 가이드 라인(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이하 국제 산업 협력 가이드 라인을 내놓았다(国务院, 2015). 전망과 행동, 국제 산업협력 가이드 라인은 중국의 국가 전략인 일대일로와 관련된 정책 문건인데 중국은 이 두 개의 문건이 나온 이후 금융기관과 대형 국유 은행들의 자금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중국의 차관 제공으로 인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부채 증대와 자생력 약화, 중국의 유교적 세계관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유목문화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가 있다(윤성학·김영진, 2019). 그리고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별 사례 연구를 한 논문들도 나와 있다. 우선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인 누를리 졸(Nurly Zhol)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조정원, 2020). 또한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중국과의 차관계약을 분석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의 투자 환경 개선, 다자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대외원조 다변화와 경쟁 유도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김영주 외, 2021). 계산가능한 공간균형 모델(computable spati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일대일로가 중앙아시아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일부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들은 중앙아시아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

역들은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Birdet al., 2020).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수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서구적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학생들보다 일대일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입증한 논문도 있다(Primiano and Kudebayeva, 2023).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시도하고 있는 자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의의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나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을 결합한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지역 네트워크의 강한 노드로 부상하였으며, 네트워크 내 노드(즉 국가) 간의 관계를 견고히 하며, 새 노드의 가입을 흡인함으로써 자국의 네트워크 권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김현정·두보, 2017). 이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기반 구축, 에너지 수입을 통해 자국의 네트워크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의 일대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예측한 연구는 나와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2023년에 사업 추진 10주년이 된 일대일로의 시작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일대일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정책 문건, 학술논문, 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일대일로의 추진 메커니즘,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진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10년간의 일대일로 추진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향후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 권력을 행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II. 일대일로의 인식과 대응

### 1. 중국

중국은 일대일로를 서북 지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인접한 중앙아시아를 통해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산업에너지 협력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의 산업에너지 협력(产能合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국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태양광 패널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은 품목들의 기업들을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게 해서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김영진, 2018: 2).

이와 함께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의 핵심 이념으로 공동 비즈니스(共商), 공동 건설(共建), 공유(共享)를 내세우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심상통(民心相通), 공동발전(共同发展),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를 제시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新闻办公室, 2023).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상술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들과 매년 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외교, 양자외교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산업 기반, 사회간접자본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 정책 금융 기관들(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국내 기업들 간의 협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양측의 프로젝트 참여 행위자들 간의 실무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 2. 카자흐스탄

2013년만 해도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의 서부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로 초기부터 중국의 카자흐스탄에서의 일대일로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2014년 11월 11일 자국의 경제사회발전 전략인 ‘누를리 줄’을 내놓은 이후 누를리 줄과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중국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누를리 줄은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발전, 국내 은행 부실 해소, 카자흐스탄 국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가 누를리 줄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면 카자흐스탄의 국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자본 조달과 중국과 카자흐스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2014년 12월 14일 카자흐스탄 정부 국민경제부는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공동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关于共同推进丝绸之路经济带建设的谅解备忘录]에 서명하면서 일대일로와 누를리 줄의 연계를 위한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张晓哲·方学, 2016).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12월 14일에는 당시 카자흐스탄 총리였던 카림 막시모프와 중국 총리였던 리커창이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공동 성명[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联合公报]에서 일대일로와 누를리 줄의 연계와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로 명시하였다(李克强·卡里姆马西莫夫, 2015).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민경제부,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의 국정 컨트롤타워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누를리 줄과 일대일로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협의와 작성을 서두르게 되었고 그로부터 8개월여 후인 2016년 9월 2일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샤오스 주임과 비힘바예프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장관은 중국 항저우에서 「실크로드경제권 건설과 누를리 줄 신경제정책의 대응 협력 기획[“丝绸之路经济带”建设与“光明之路”新经济政策对接合作规划]의 완성본에 서명하면서 일대일로와 누를리 줄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공개하게 되었다(徐绍史·比希姆巴耶夫, 2016).

카자흐스탄은 누를리 졸과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통해 내륙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3개 노선(중국-카자흐스탄-서아시아, 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서유럽, 중국-카자흐스탄-코카서스 남부/튀르키예-유럽)의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의 인적 교류와 무역의 편리성과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徐绍史·比希姆巴耶夫, 2016). 2019년 3월 20일부터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도 일대일로가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2024년 1월 5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과 중국이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의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정과 타칭-아야구즈 철도 프로젝트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협력이 카자흐스탄의 운송 및 물류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严玉洁·王辉, 2024).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누를리 졸과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통해 세무와 금융 협력을 통한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투자 활성화, 카자흐스탄과 중국 기업들의 전통 제조업(섬유, 식품, 건설기계, 자동차)와 신흥 산업(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발전을 위한 협력 추진, 다수의 핵심 프로젝트 선정과 추진 과정의 점검을 통한 성과 관리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국내 경제성장의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张晓哲·方学, 2016).

### 3.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카리모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던 2016년 9월 2일까지는 일대일로를 중국으로부터 자국과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유럽국 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에 활용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6월 15일에 중국 산둥성 르자오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실크로드경제권 이니셔티브에서의 경제무역협력 확대에 대한 의정서[关于在落实建设“丝绸之路经济带”倡议框架下扩大互利经贸合作的议定书]를 체결하면서

일대일로를 상술한 바와 같은 자국의 경제발전 목표와 연계하고자 하였다(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2015).

그러나 카리모프의 뒤를 이어서 2016년 12월 14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는 자국의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전환, 제조업 생산설비의 증대, 내연기관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국의 대기오염 문제 완화를 위해 중국과의 일대일로를 ‘녹색 실크로드’의 틀에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3년 10월 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일대일로가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촉진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녹색 실크로드의 틀 안에서 포괄적인 녹색 개발 개요의 공식화, 과학 기술 협력 심화, ‘일대일로’ 녹색 투자 원칙 지원, 녹색 상품 무역 장벽 완화, 녹색 에너지 전환 대화 강화를 제안하면서 녹색 실크로드와 관련된 문화 교류와 과학 정보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新华网, 2023/10/18). 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국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 중심에서 환경친화적 경제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으로의 협력 영역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4.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자국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위해 타지키스탄은 2014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타지키스탄 방문 기간에 실크로드 경제권 공동 건설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共建“丝绸之路经济带”合作谅解备忘录]를 체결하였다(中国服务贸易指南网, 2023/5/19). 그 이후 타지키스탄은 2030년 전까지의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과 일대일로를 연계하여 중국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일대일로를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타지키스탄의 발전 목표 실현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sup>1</sup> 1992년 11

<sup>1</sup> 자프지조다 타지키스탄 경제발전무역부 장관의 2023년 5월 18일 중국 시안에서의 신화사 기자

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타지키스탄을 통치하고 있는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도 2022년 2월 2일 수도 두산베에서의 중국 언론사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를 통한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협력은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였다(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2022). 이와 같은 타지키스탄 정부의 일대일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평가는 중국이 타지키스탄의 사회간접자본, 국내 산업기반 구축,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5.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도 타지키스탄과 함께 국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을 자력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이어서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를 연결하는 데 지형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면 지형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국 국내와 우즈베키스탄, 중국을 연결하는 중지우철도의 연결 및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마르트 아톨바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2023년 10월 18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본인이 동남아시아의 내륙국인 라오스에서 철도를 이용하면서 키르기스스탄과 지형이 유사한 라오스도 철도 이용이 가능해졌으므로 키르기스스탄도 철도 이용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白云怡·陈青青, 2023).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은 일대일로를 활용한 중국과의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내륙국인 키르기스스탄이 중국의 항구를 활용하여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국가전략연구소 사라딜 바크트구로프 박사는 산지로 둘러싸인 키르기스스탄이 바다로 나가려면 중국과의 교통물류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중국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와의 인터뷰 발언(新華社, 2023c).

였다(新华网, 2023/5/14).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정부와 국내 기업의 자본으로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동 등의 광물자원의 신규 개발과 채굴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자국에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도움을 받아서 고학력 인재 양성과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킬베크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2024년 5월 31일에 오쉬국립대학 로봇인공지능센터 개소식에서 일대일로를 통해 더 많은 고급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关建武, 2024).

## 6.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12월 14일 중국으로 자국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중앙아시아-중국 1기 가스관의 개통 이후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량 증대에 주력해 왔다. 반면에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는 산업협력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2006년 12월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인민이사회 의장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유명 기업들을 보유한 선진국들, 지리적으로 인접한 터키와의 협력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엔지니어링이 2013년에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는 사우스 울로텐의 가스 탈황설비, 투르크멘가스, 현대엔지니어링, LG인터내셔널, 일본 토요에너지와 함께 건설하여 2018년 10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발칸주 키안레 폴리머 공장, 투르크멘가스가 일본 가와사키, 터키 르네상스 홀딩스와 함께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는 2019년 6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아할 주의 휘발유 공장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环俄法律网, 2023/7/26).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경제개발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정부 차원의 연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3월 19일부터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자국

의 산업 발전과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다 원활한 유입을 위해 자국의 경제개발 전략과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2023년 1월 6일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와 일대일로와 실크로드 부흥의 공동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土库曼斯坦政府关于共建“一带一路”倡议和“复兴丝绸之路”战略对接的谅解备忘录]」를 체결하고 자국의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国家发展改革委公众号, 2023/1/6).

### III. 일대일로의 추진 체계

#### 1. 정부 기관 간의 추진 및 공조 체계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이다. 발개위에서는 직속 부서들 중에서 구역개발사, 국제사가 일대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역개발사는 일대일로 추진 영도소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대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区域开放司, 2024/5/22). 국제사는 일대일로 관련 대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 국가 간의 상업 및 협력 문서 서명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의 주요 해외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国际司, 2024/5/22). 2000년대부터 발개위가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2000년대 이전까지 외교부가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 주무부처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중국인민대학 Z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4/7/12). 이러한 상황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발개위가 국무원 총리 산하의 정부 부처이고 일대일로를 비롯한 대형 사업의 예산 업무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되면서 국가주석이 경제 관련 업무는 국무원 총리가 전담하게 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국무원이 발개위를 출범시킨 이후 발개위의 역할이 커지면서 외교부의 업무였던 영역도 중국 중앙정부의 자

금이 투입되는 해외 사업 관련 업무는 국무원 산하의 발개위가 관여하게 된 것이다.

## 2. 자금 조달

일대일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자금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이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 수출로 국부를 축적함으로써 대외원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제조업과 금융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 진흥, 사회간접자본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산업 발전 단계가 낮고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낮으며 사회간접자본이 부실하여 중국을 비롯한 해외원조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정부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 대출 형태의 지원보다는 무상원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 재정부는 2020년부터는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원조 지원 파트너들을 다변화하여 무상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희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간접자본,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대전략이다. 그로 인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만 사업의 경제성을 무시하고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은 중앙아시아 수원국의 국내 수요, 수원국이 희망하는 사업의 중요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발개위 구역개방사, 발개위 국제사, 중국 외교부, 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 국가에너지국과 협조를 통해 일대일로에서의 중앙아시아 지원사업의 대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상하이 외국어대학 Y교수와의 위챗 인터뷰, 2024/6/23).

## IV. 일대일로의 성과와 문제점

###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의 첫 번째 제안이었던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이 나왔던 국가이며 자국의 산업 정책인 누를리 줄과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자국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부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50개의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표 1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은 카자흐스탄의 국내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에게 원유, 천연가스 등의 원재료를 수출하고 중국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와 누를리 줄 간의 연계를 통한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산업협력은 카자흐스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2019년 4월 중국이 투자한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카자흐스탄 서부 아티라우에서는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自由亚洲电台, 2019/4/8). 2021년 10월 20일에는 카자흐스탄의 NGO 크루드 어카운터빌리티가 쉘켄트의 정유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야간의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유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석유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企业责任资源中心, 2021). 중국 업체들은 현지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설비 운영 비용과 환경오염 저감 설비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肖斌, 2018: 58).

###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일대일로와의 연계에서의 성과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교단 건설 및 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대우자동차의 현지 진출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풍부한 면화를 활용하여 방직, 섬유 공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

표 1 중국의 지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의 국내 산업기반,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

프로젝트	지역	분야	참여 업체	투자 비용(지분 인수)/ 지원기관	시공 개시
아스타나 서부- 남부 순환도로	아스타나	건설	통용기술신흥공사 (通用技术新兴公司)	10억 달러/ 중국수출입은행	2019
폴리프로필렌 공장	아티라우	석유화학	중화공정	20억 5,000만 달러/ 중국 국가개발은행	2021
신위엔제철소	섬켄트	철강	신장 민항신위엔	5,000만 달러/ 신장 민항신위엔	2016
네프테킵 파우더 폴리프로필렌 공장 현대화	파블로다르	석유화학	신장산바오실업 (新疆三宝实业)	1,200만 달러/신장산 바오실업	2022
유리공장	키질로르다 주	제조업	중국건재 (中国建材)	1억 7,800만 달러/ 카자흐스탄발전은행	2022
타인샤 유채유 공장	북카자흐스탄 주	농업/식품	시안아이취 식용유공업그룹 [西安爱菊粮油工业集团]	1,900만 달러/시안아 이취식용유공업그룹	2022
아이취 농산품 물류가공 단지	북카자흐스탄 주	농업/식품	시안아이취 식용유공업그룹 [西安爱菊粮油工业集团]	1억 3,797만 달러/ 시안아이취식용유공 업그룹	2016
투얼구스 수력발전소	동카자흐스탄 주	전력	CWE	5,000만 달러/ 카자흐스탄 바이텍	2021
골든카멜 분유 공장	투르케스탄	유업	골든카멜 그룹	2,222만 달러/ 다칭진투디 절수엔지니어링	2017
장화이자동차-아 루얼자동차 차량 제조 협력 사업	코스타나이	자동차	장화이자동차	아루얼자동차 51% 지분 인수/ 장화이자동차	2019
버스 공장	라간다	자동차	위통버스	230억 탱게/위통버스	2018
우라눔 광산개발 및 채굴 (센트럴민쿠덕 광 산/잘팍광산)	남카자흐스탄	광업	중광허	4억 3,500만 달러/ 중광허	2021

출처: 张继业 외(2022); 曹然·张硕(2023/10/18);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외(2024a).

표 2 카자흐스탄의 대 중국 무역(2018-2022)

연도	무역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출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입액 (억 달러)	증감 (%)
2018	198.78	10.8	85.27	33.7	113.51	-1.8
2019	220.03	10.7	92.74	8.8	127.29	12.1
2020	214.76	-2.4	97.73	5.4	117.03	-8.1
2021	252.22	17.4	112.91	15.5	139.31	19
2022	311.74	23.6	148.19	31.2	163.55	17.4

자료: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2024a: 32).

본의 부족으로 새로운 공단 건설과 국내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확충, 새로운 공단 조성 및 운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북부와 남부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국의 국유 기업인 중국 철도 터널그룹[中国中铁隧道集团]이 우즈베키스탄 국가 철로 공사와 함께 2013년 8월 1일부터 공사를 진행했던 안그렌-파프 터널(이하 캅치 터널)을 2016년 6월 22일에 개통하였다. 캅치 터널의 건설은 수도 타슈켄트와 안그렌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과 남부의 나망간 주의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육로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남북 간의 연결과 왕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카리모프 대통령은 캅치 터널 프로젝트를 대통령 1호 프로젝트로 명명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통한 공사와 터널 개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터널인 캅치 터널의 개통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철도로 연결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남북 간의 인적 교류와 상품 운송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캅치 터널의 공사에 투입된 4억 5,500만 달러(5,054억 5,95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달러(3,888억 1,500만 원)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지원하였다. 중국의 정책 금융 기관인 중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없었다면 캅치 터널의 개통과 우즈베키스탄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지대인 게다임을 기점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 신장의 호르고스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3기가 개통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3기도 중국석유의 가스관 건설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2018년 1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가스 공급 설비 고장과 겨울의 기온 저하로 인하여 대 중국 수출을 3차례 중단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으로 수출한 천연가스 34만 9,000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 감소 물량의 보충으로 활용되었다.

중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평성공단(鹏盛工业园)은 중국 화동 지역의 산업 중심인 저장성 정부와 중국 로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다. 평성공단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70km 떨어진 시르하 주에 있는 지자크 경제특구에 위치해 있다(조정원, 2018a: 2). 중국의 로컬 이동 통신 업체인 중싱(中兴)은 평성공단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스마트폰 외에도 중국 기업들은 신발, 수도꼭지, 욕조, 소시지 생산에 쓰이는 돼지와 양의 창자 등의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운영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생필품 산업 기반 구축과 생필품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조정원, 2018a: 2).

중국의 일대일로의 혜택을 경험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년 4월 9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외교의 우선 방향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법령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 인프라와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국의 자금과 기술을 유치하여 공단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중국을 연결하는 철로도 건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대중국 수출의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양국의 무역액을 1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3에 나온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간의 무역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에 66억 2,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면서 무역액 100억 달러 진입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무역액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 양국의 무역액은 97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에 천연가스와 광물, 동, 면화, 채소를 주로 수출하고 있

표 3 우즈베키스탄의 대 중국 무역 (2018~2022)

연도	무역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출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입액 (억 달러)	증감 (%)
2018	62.68	48.5	23.24	58	39.43	43.4
2019	72.14	15.1	21.81	-6.2	50.33	27.6
2020	66.29	-8.1	14.83	-32	51.50	2.3
2021	80.55	21.5	21.56	45.3	58.99	14.6
2022	97.81	21.77	22.76	5.61	75.04	27.7

자료: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2024b: 22).

고 중국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가전제품, 차량, 음향기기, 영상기기,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b: 22). 우즈베키스탄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이 원재료와 농산물 중심이고 다수의 공산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억 달러를 넘어서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22년 22억 7,600만 달러로 동년 대 중국 수입액의 약 30.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의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중국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업체들은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전기자동차 분야의 투자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2023년 9월 2일에는 중국의 자동차 업체 동평이 페르가나 주에 전기버스 공장, 전기버스 충전소,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卫星网, 2023/9/2). 그리고 2024년 1월 7일에는 란저우 광통 신에너지가 안디잔에 전기버스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였다(DARYO, 2024/1/7).

그러나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환경오염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현지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일자리 창출 증대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환경오염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규제와 관련 기술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미르지

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의 녹색 실크로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즈베키스탄의 중국의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가 활발해진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일본, 한국, 중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산업 수요가 늘어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우즈베키스탄이 환경문제를 완화하려면 제조업 생산설비와 광업 현장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완화에 필요한 환경설비가 갖춰져야 하고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 환경설비는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은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원 역할 수행만 가능하고 대규모로 전력을 보내고 공급하는 기저 전원의 역할 수행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2023년 1인당 GDP 1,189달러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다(World Bank, 2024). 그리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단독으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은 외국의 원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타지키스탄 공단”은 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이다. 특히 이 공단에는 타지키스탄이 필요로 했지만 자국의 자금 부족으로 건설하지 못했던 납 아연 제련소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타중광업유한공사(塔中矿业有限公司, 약칭 타중광업)은 상하이 하이청즈위엔(上海海成资源)의 투자로 만들어진 중국-타지키스탄 합자기업이다(조정원, 2014: 2). 그리고 중국은 타지키스탄의 시멘트 산업기반 구축과 시멘트의 해외 수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차이귀지(中材国际)의 타지키스탄 모이얼 시멘트 공장은 타지키스탄이 해외에서 시멘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끝내고 타지키스탄의 국내 시멘트 공급 및 해외 수출을 담당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의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李强·曲颂, 2023: 3).

현재 타지키스탄에는 천연가스 분야의 중국석유(中国石油, CNPC), 광물 분야의 상하이 하이청즈위엔(上海海成资源) 외에도 츠진광업(紫金矿业), 터비엔전기공업(特变电工), 중귀황진(中国黄金), 중귀루치아오(中国路桥), 신장산바오그룹(新疆三宝集团) 등의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조정원, 2014: 2). 중국 기업들은 자본과 기술, 사업 경험과 경영 능력이 타지키스탄 기업들에 비해 월등하게 우위에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국 정책 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타지키스탄에서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진행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타지키스탄 투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뤼양 자싱 전원과학기술 유한공사는 타바스 엔지니어링과 전기자동차용 스마트 고속 충전기를 개발하였고 안후이 장화이자동차는 두산베에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점포를 열고 현지의 전기자동차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李强, 2023: 17). 2023년에는 중국 진촨공사가 타지키스탄 아키아 아비스토자동차와 타지키스탄에 연간 1,500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하기로 하였다(李强, 2023: 17).

타지키스탄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공산품을 수입하고 중국에 광물과 보석, 귀금속, 면화 등을 수출하고 있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c: 32). 타지키스탄의 대 중국 무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표 4에 나온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양국의 무역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2022년에 무역액 25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4.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2021년 1인당 GDP가 1,276.7달러로 타지키스탄보다는 국민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지만 정부와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 기반 구축, 국내 전력과 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자국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 신장의 전력 기업 터비엔전기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남북 전력망과 500kV 다크타-커민 변전소

표 4 타지키스탄의 대 중국 무역(2018~2022년)

연도	무역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출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입액 (억 달러)	증감 (%)
2018	15.1	9.8	0.8	64.5	14.3	7.9
2019	16.75	11.2	0.85	10.1	15.9	11.3
2020	10.62	-36.6	0.45	-47	10.17	-36
2021	18.61	75.2	1.76	287.4	16.86	65.8
2022	25.99	40.4	3.81	117.6	22.17	32.4

자료: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2024c: 32).

건설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터비엔전기공업의 주도하에 비슈케크 열병합발전소도 개조하여 150MW 용량의 새로운 발전기 2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새로운 발전기는 비슈케크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을 두 배로 증가시켜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부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中国能源新闻网, 2023/11/30). 비슈케크 열병합발전소의 개조가 완료된 후 공장의 발전 용량은 연간 2억 6,200만 kWh에서 17억 4,000만 kWh로 증가했으며 동시에 시간당 4,000m<sup>3</sup>의 난방수를 제공하여 100만 명 이상의 비슈케크 거주자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다(中国能源新闻网, 2023/11/30).

키르기스스탄의 숙원 사업인 중국, 우즈베키스탄과의 철도 연결은 2024년 6월 6일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정부 간의 중키우 철도 연결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공사비용 분담의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중키우 철도는 키르기스스탄의 잦은 정권교체와 공사비용 분담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 시작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으나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키르기스스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키우 철도 연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王慧·张菁娟, 2024).

표 5에 나온 바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은 대 중국 무역액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에는 무역액 15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 키르기스스탄 수출액이 2021년부터 크게 늘어나면서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입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d: 22).

표 5 키르기스스탄의 대 중국 무역 (2018~2022)

연도	무역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출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입액 (억 달러)	증감 (%)
2018	56.12	3.5	0.54	-37.6	55.57	4.1
2019	63.46	13.1	0.66	21.5	62.80	13.0
2020	29.02	-54.3	0.35	-47.3	28.66	-54.4
2021	75.57	160.6	0.80	129.1	74.77	161.0
2022	155.03	105.55	0.82	2.41	154.21	106.67

자료: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2024d: 22).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에게 의류, 기계설비, 전자제품, 신발,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가구, 피혁제품, 화학섬유, 완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과일 및 견과류를 수출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에게 황금을 중심으로 하는 귀금속, 광사, 가죽 및 피혁,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양모, 유제품, 꿀을 수출하고 있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d: 22). 중국의 대 키르기스스탄 수출액은 2022년에 154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공업 생산 능력이 낮고 다수 국민들이 고가의 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중국의 공산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sup>2</sup> 상술한 바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이 적지만 광업을 제외한 산업의 대량 생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다. 키르기스스탄의 낮은 공업 생산 능력은 키르기스스탄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대 중국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은 홍콩으로 수출하는 황금이다. 키르기스스탄은 2022년 황금 수출액 1,306만 4,900달러(수출량 290.55kg)를 기록했는데 그중 홍콩에 1,197만 9,300달러(수출량 202.05kg, 같은 해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황금 수출량의 약 65%)를 수출함으로써 같은 해 키르기스스탄의 황금 수출

<sup>2</sup> 중국의 2022년대 키르기스스탄 수출액 154억 2,100만 달러는 같은 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을 비교해 봐도 카자흐스탄(163억 5,500만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액의 약 91.7%를 차지하였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d: 18). 상술한 바와 같은 키르기스스탄의 2022년 대 중국 황금 수출 현황은 키르기스스탄의 황금 수출에 있어서 중국의 홍콩특별자치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다리야 강 부근에 위치한 바그드레에서의 천연가스 탐사개발 사업이다. 바그드레 천연가스 탐사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탐사와 신규 가스전 평가 및 개발, 오래된 가스전 복원 및 조정, 엔지니어링 건설을 진행하는 사업이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d: 40-41). 바그드레에서 개발된 천연가스는 2022년 6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으며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白波, 2022/6/20).

표 6에 나온 바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중국 무역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투르크메니스탄과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한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의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 기계, 휴대전화를 비롯한 가전제품, 철강, 전기 및 전기설비, 차량 및 차량 부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표 6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중국 무역 (2018~2022)

연도	무역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출액 (억 달러)	증감 (%)	대 중국 수입액 (억 달러)	증감 (%)
2018	84.36	21.5	81.19	23.5	3.17	-13.9
2019	91.17	8.1	86.86	7.0	4.31	36.0
2020	65.16	-28.5	60.71	-30.1	4.45	3.2
2021	73.60	13.0	68.44	12.7	5.15	16.0
2022	111.82	52.0	103.14	50.7	8.68	69.3

자료: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2024e: 39).

공산품 수입원이 다변화된 상태여서 수출을 통한 무역 흑자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e: 39).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폴리에틸렌, 유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면화를 중국에 수출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外, 2024e: 39).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액이 60억 7,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1% 감소했었지만 2021년부터 경제활동과 무역이 회복되면서 2022년에는 대 중국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바그드레 천연가스 탐사개발 사업 외에는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 그리고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자국의 사회간접자본, 산업단지 개발과 완성을 한 사업이 전무한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과 산업 협력,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었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인민이사회 의장이 천연가스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서는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는 인접 국가인 터키 기업들과 서방 선진국들의 유명 기업들의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 기반 구축 실적이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정원, 2018b: 541). 현재 재임 중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자국의 국가 발전 전략인 부흥 실크로드와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부친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인민이사회 의장의 국정에 대한 영향력은 대통령 재임 시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인민이사회 의장의 필요에 따라서 대 중국 협력의 범위와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인민이사회 의장이 중시하는 가전 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와 인력양성 지원이 있어야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V. 일대일로 10년에 대한 평가

일대일로 10년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자국의 공산품 공급과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기반 구축에 대하여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자국의 발전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교통 허브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샤이메르그노바 카자흐스탄 중국연구센터 주임은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누를리 줄’과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을 통해 태평양으로 직통하는 ‘출항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허브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央视网, 2023/10/11).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이드 카시모프는 일대일로가 우즈베키스탄을 중요한 교통 허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바다와 보다 가깝게 만들어서 중국, 유럽 및 걸프 국가와의 무역 및 운송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白云怡·陈青青, 2023).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국의 자렌 제노리예프 부국장은 일대일로의 추진과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로 건설이 키르기스스탄을 내륙 국가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 국가로 변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일대일로가 키르기스스탄의 영역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新华社, 2023/9/27). 상하이협력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한 타지키스탄 국가행정학원 사리드 아리모프 교수는 타지키스탄이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으로 인하여 자국의 교통물류 네트워크와 사회간접자본 개선의 혜택을 받았으며 타지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교통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면서 통과 무역 증가의 수혜를 입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拉希德·阿利莫夫, 2023: 3).

이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의 정부와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10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10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 우선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제조업 투자와 제조업 공장 운영

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 시민사회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저개발국가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국 금융기관들의 대출로 인한 채무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2022년 상반기에 중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가채무가 18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 부담은 2027년에 최고조에 달하고 2028년이 되어서야 채무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吉尔吉斯斯坦 国家通信社, 2022/6/22). 중앙아시아에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고 정부와 기업의 자체 투자 능력이 좋지 않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신속하게 받으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해외투자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무상원조를 통해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기보다는 상환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는 대출을 통해서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자국의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해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 상환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VI. 결론 및 전망

중국의 일대일로는 원래 자국의 서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함께 이들 국가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려는 서진 전략의 성격이 강했다. 그로 인해 일대일로의 추진 초기에 중국은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 발전 전략인 ‘누를리 줄’과의 연계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국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도움을 통해 자국의 자본과 인력의 부족

으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100억 위안 규모의 중국-중앙아시아 대출 기금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산업 협력,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전담하고 있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中国—带—路网, 2023/5/22).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아시아의 국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키워드인 산업에너지 협력[产能合作]은 중앙아시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내 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는 추진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녹색 실크로드를 제안하면서 국제 환경협력을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환경 산업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과잉생산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타지키스탄은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소비 수준이 높지 않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고 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хам메도프 인민이사회 의장이 선진국 유명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공산품에 대한 중국 의존이 심하지 않으며 중국과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과잉생산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반면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출 규모는 2022년 수출액이 8억 6,800만 달러로 중국의 같은 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액(카자흐스탄: 163억 5,50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75억 400만 달러, 타지키스탄: 22억 1,700만 달러, 키르기스스탄: 154억 2,100만 달러)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중국 공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대 중국 수출액도 2021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의 수출액이 2022년에 1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

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완화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중국의 노동력과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경계 심리와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 기반 구축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제조업 공장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는 중국 외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해 주는 국가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개발 국가들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본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중앙아시아에서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즈베키스탄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카리모프 대통령 집권 기간보다 심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 누를리 줄과 일대일로의 연계를 통해 국내 사회간접자본, 산업기반 구축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일대일로의 중점 분야인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기반 구축이 중요한 중앙아시아 4개국은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정책 금융기관들의 사회간접자본,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 자본에 대한 활용과 의존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 권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강화될 것이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도 중국의 자본과 기술,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네트워크 권력이 경제 분야에서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개발은행과 서방 선진국들의 무상원조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

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가 호황으로 전환되더라도 서방 선진국들에게 이들 두 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자 개발은행과 서방 선진국들의 무상원조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중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의 장기 대출 외에 사회간접자본과 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권력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서방 선진국들과 러시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고일: 2024년 6월 10일 | 심사일: 2024년 6월 30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김영진. 2018.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앙아 국가의 대응: 경제부흥의 기회인가?” 『다양성 +Asia』 1(1), 1-6.
- 김영진·윤성학. 2019. “중앙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슬라브연구』 35(1), 27-52.
- 김영주·박현·박혜민. 2021. “대외원조 관점에서 본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금융조달 구조: 키르기스스탄 사업 차관계약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3), 129-147.
- 김현정·두보. “网络权力理论和人类命运共同体理念下的中国一带一路战略构想.” 『세계 지역연구논총』 35(1), 69-96.
- 장규호. 2007. “실크로드 현대판으로 부활한다.” 한국경제(9월 20일), A12.
- 조정원. 2014. “시진핑의 타지키스탄 방문과 중국 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에너지와 투자를 중심으로.”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1-4.
- \_\_\_\_\_. 2018a. “우즈베키스탄의 일대일로와의 연계, 중국과의 산업협력.”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1-3.
- \_\_\_\_\_. 2018b.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 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경제 협력.” 『외국학연구』 (44), 515-554.
- \_\_\_\_\_. 2020. “중국의 일대일로와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줄의 연계: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5(4), 281-306.

- 백권호·백서운. 2023.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50: 1-43.
- 白云怡·林小艺·夏温新. 2023. “乌兹别克斯坦前副总理、前外交部长：“一带一路”让乌兹别克斯坦离大海“更近”.” 环球时报(9月 9日), <https://world.huanqiu.com/article/4ESlDkQxhF9>(검색일: 2023. 11. 21.).
- 白云怡·陈青青. 2023. “吉尔吉斯斯坦前总理：一带一路为欧亚大陆带来革命性变化.” 中国网(9月 9日), <https://world.huanqiu.com/article/4ESlDkQxhF9>(검색일: 2023. 11. 21.).
- 曹然·张硕. 2023. “我们几十年没修通的路，被你们修通了.” 中国新闻周刊(10月 18日), <https://www.inewsweek.cn/world/2023-10-18/20139.shtml>(검색일: 2024.4.21)
- 俄罗斯卫星通讯社. 2023a. “乌兹别克斯坦总统：中国是可靠的合作伙伴，乌方始终坚定支持并积极参与“一带一路”倡议.” 俄罗斯卫星通讯社(10月 18日), <https://sputniknews.cn/20231018/1054193578.html>(검색일: 2023. 11. 23.).
- \_\_\_\_\_. 2023b. “习近平会见乌兹别克斯坦总统：两国发展目标相似，理念契合.” 俄罗斯卫星通讯社(10月 18日), <https://sputniknews.cn/20231018/1054189056.html>(검색일: 2023. 11. 23.).
- 关建武. 2023. “吉尔吉斯斯坦举行“一带一路”倡议十周年成果与前景国际研讨会.” 新华网(10月 12日), [http://www.news.cn/world/2023-10/12/c\\_1212287897.htm](http://www.news.cn/world/2023-10/12/c_1212287897.htm)(검색일: 2023. 11. 27.).
- \_\_\_\_\_. 2024. “吉尔吉斯斯坦总理：愿深化吉中合作传承友好.”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6月 2日),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6/content\\_6955207.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6/content_6955207.htm)(검색일: 2024. 6. 12.).
- 国际司. 2024. “国际司.”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5월22일), <https://www.ndrc.gov.cn/fzggw/jgsj/gjs/> (검색일: 2024.7.19)
- 国际在线. 2023. “外专谈“一带一路”| 吉尔吉斯斯坦学者：“一带一路”倡议创造机遇 泽被全球.” 国际在线(10月 20日), <https://news.cri.cn/2023-10-20/f72e39b0-5fae-13f6-6ade-d1b790984ca9.html>(검색일: 2023. 12. 19.).
- 国务院. 2015.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中国政府网(5月 16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5/16/content\\_9771.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5/16/content_9771.htm)(검색일: 2020. 9. 8.).
- 吉尔吉斯斯坦 国家通信社. 2022. “吉尔吉斯斯坦对中国进出口银行的债务已接近18亿美

- 元.” 吉尔吉斯斯坦 国家通讯社(6月 22日), <https://cn.kabar.kg/news/cn2022-6-30-13/>(검색일: 2023. 7. 21.).
- 李强. 2023. “塔吉克斯坦努力发展电动汽车产业 中塔将创建年产量一千五百辆电动汽车的合资企业.” 人民日报(8月 31日), 17.
- 李强·曲颂. 2023. “塔中共建‘一带一路’成果丰硕.” 人民日报(9月 4日), 3.
- 李克强·卡里姆马西莫夫. 2015.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联合公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12月 14日), [https://www.mfa.gov.cn/ziliao\\_674904/1179\\_674909/201512/t20151214\\_7947631.shtml](https://www.mfa.gov.cn/ziliao_674904/1179_674909/201512/t20151214_7947631.shtml)(검색일: 2024.4.21)
- 企业责任资源中心. 2021. “哈萨克斯坦：中资项目的邻近社区就环境污染发出警告；中国石油天然气集团和中国葛洲坝公司没有回应.” 企业责任资源中心(10月21日),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zh-hans>(검색일: 2024.6.12)
- 王林·李丽旻·李慧. 2023. “多国政要高度评价共建“一带一路”倡议.” 『中国能源报』(10月 23日).
- 韩晓明. 2023. “发展前景广阔 造福各国人民.” 『人民日报』(10月 19日).
- 区域开放司 推进“一带一路”建设工作领导小组办公室. 2024. “开放司.”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5月 22日), <https://www.ndrc.gov.cn/fzggw/jgsj/kfs/>(검색일: 2024. 7. 19.).
- 拉希德·阿利莫夫. 2023. “拉希德·阿利莫夫: “一带一路”是一条互利互惠之路.” 人民日报(10月 12日).
- 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中国驻哈萨克斯坦大使馆经济商务处. 2024a.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哈萨克斯坦(2023年版).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 \_\_\_\_\_. 2024b.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乌兹别克斯坦(2023年版).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 \_\_\_\_\_. 2024c.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塔吉克斯坦(2023年版).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 \_\_\_\_\_. 2024d.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吉尔吉斯斯坦(2023年版).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 \_\_\_\_\_. 2024e.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 土库曼斯坦(2023年版).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 推进“一带一路”建设工作领导小组办公室. 2019. 『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北京: 外文出版社.

卫星网. 2023. “东风电动客车生产, 或将落户乌兹别克斯坦费尔干纳.” 卫星网(9月 4日), <https://www.huanenet.com/wsbkst/3895.html>(검색일: 2024. 5. 20.).

肖斌. 2018. “哈萨克斯坦在中哈产能合作中的“政治反应”.” 『欧亚经济』2018(4), 58.

新华网. 2023a. [http://www.news.cn/world/2023-05/14/c\\_1129613114.htm](http://www.news.cn/world/2023-05/14/c_1129613114.htm)(검색일: 2024. 2. 13.).

\_\_\_\_\_. 2023b. “中亚国家人士高度评价共建“一带一路”倡议十年成果.”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9月 27日),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09/content\\_6906612.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09/content_6906612.htm)(검색일: 2024. 2. 25.).

\_\_\_\_\_. 2023c. “专访: “一带一路”倡议助力中亚国家与中国加深互利合作——访吉尔吉斯斯坦 国家战略研究所专家舍拉迪尔·巴克特古洛夫.” 新华网(5月 14日), [http://www.news.cn/world/2023-05/14/c\\_1129613114.htm](http://www.news.cn/world/2023-05/14/c_1129613114.htm)(검색일: 2024. 4. 17.).

\_\_\_\_\_. 2023d. “一带一路”高峰论坛 乌兹别克斯坦总统: 愿扩大共建“一带一路”框架下绿色合作.” 新华网(10月 18日), [http://www.news.cn/2023-10/18/c\\_1129924355.htm](http://www.news.cn/2023-10/18/c_1129924355.htm)(검색일: 2024. 2. 25.).

徐绍史·比希姆巴耶夫. 2016. “关于“丝绸之路经济带”建设与“光明之路”新经济政策对接合作规划.” 中国网(10月 18日), [http://ydyi.china.com.cn/2016-10/18/content\\_58252896.htm](http://ydyi.china.com.cn/2016-10/18/content_58252896.htm)(검색일: 2024. 4. 9.).

严玉洁·王辉. 2024. “哈萨克斯坦总统: 哈中关系堪称典范.” 人民日报(1月 5日), <https://china.chinadaily.com.cn/a/202401/05/WS65979a79a310af3247ffaf1e.html>(검색일: 2024. 1. 23.).

张继业·孟菁·蔡国栋. 2022. “综述: 共建“一带一路”为中哈合作注入新的生机与活力.”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9月 14日), [https://www.gov.cn/xinwen/2022-09/14/content\\_5709676.htm](https://www.gov.cn/xinwen/2022-09/14/content_5709676.htm)(검색일: 2024. 5. 7.).

张晓哲·方学. 2016. “发改委解读“一带一路”框架下首个双边合作规划.” 中国一带一路网(10月 10日), <https://www.yidaiyilu.gov.cn/p/7651.html>(검색일: 2024. 4. 9.).

中国服务贸易指南网. 2023. “共建“一带一路”成果丰硕 推动构建中塔发展共同体.” 中国服务贸易指南网(5月 19日),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article/ydyi/yaowen/gjyw/202305/148855.html>(검색일: 2024. 2. 21.).

中国能源新闻网. 2023. “吉尔吉斯斯坦能源人士: 中吉能源合作将进入更活跃阶段.” 中国能源新闻网(11月 30日), [https://www.cpn.com.cn/news/ydylnyhz/202311/t20231130\\_1655716.html](https://www.cpn.com.cn/news/ydylnyhz/202311/t20231130_1655716.html)(검색일: 2024. 1. 12.).

- 中国一带一路网. 2023. “国家开发银行设立中国—中亚合作100亿元专项贷款.” 中国一带一路网(5月 22日), <https://www.yidaiyilu.gov.cn/p/319679.html>(검색일: 2023. 5. 22.).
-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新闻办公室. 2023.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10月 10日), [https://www.gov.cn/zhengce/202310/content\\_6907994.htm](https://www.gov.cn/zhengce/202310/content_6907994.htm)(검색일: 2024. 4. 20.).
-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2015. “中乌签署共建“丝绸之路经济带”合作文件.”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6月 17日), [https://www.gov.cn/xinwen/2015-06/17/content\\_2880473.htm](https://www.gov.cn/xinwen/2015-06/17/content_2880473.htm)(검색일: 2024. 2. 23.).
-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2015. “中乌签署共建“丝绸之路经济带”合作文件.”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6月 17日), [https://www.gov.cn/xinwen/2015-06/17/content\\_2880473.htm](https://www.gov.cn/xinwen/2015-06/17/content_2880473.htm)(검색일: 2024. 2. 23.).
- 中华人民共和国 驻哈萨克斯坦共和国大使馆. 2023. “张霄大使接受中新社专访：中哈共建“一带一路”何以成典范？” 中华人民共和国 驻哈萨克斯坦共和国大使馆(10月 11日), [http://kz.china-embassy.gov.cn/sgxx/sgdt/202310/t20231011\\_11159180.htm](http://kz.china-embassy.gov.cn/sgxx/sgdt/202310/t20231011_11159180.htm)(검색일: 2024. 1. 23.).
- 周倜然. 2023. “吉尔吉斯斯坦能源人士：中吉能源合作将进入更活跃阶段.” 中国能源新闻网(11月 30日), [https://www.cpn.com.cn/news/ydylnyhz/202311/t20231130\\_1655716.html](https://www.cpn.com.cn/news/ydylnyhz/202311/t20231130_1655716.html)(검색일: 2023. 12. 21.).
- 自由亚洲电台. 2019. “哈媒：“一带一路”为哈萨克斯坦带来生态危机.” 自由亚洲电台(4月 8日), <https://www.rfa.org/mandarin/yataibaodao/huanjing/lxy-04082019114015.html>(검색일: 2023. 3. 20.).
- Bird, Julia·Mathilde Lebrand, and Anthony J. Venables. 2023.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shaping Economic Geography in Central As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44, 24-41.
- DARYO. “Uzbekistan Secures Agreement with Chinese Company to Manufacture 2,000 Electric Buses Annually in Andijan.” DARYO (January 7), <https://daryo.uz/en/2024/01/07/uzbekistan-secures-agreement-with-chinese-company-to-manufacture-2000-electric-buses-annually-in-andijan> (검색일: 2024. 4. 20.).
- Primiano, Christopher B. and Alma Kudebayeva. 2023. “A Bumpy Ride for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Kazakhstan: Findings from a University Survey.”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November 16),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10704965231258888>

com/doi/full/10.1177/18681026231211354 (검색일: 2024. 1. 5.).

World Bank. 2024. "GDP per capita (current US\$) - Tajikistan." *World Bank Group* (July 21),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TJ> (검색일: 2024. 7. 23.).

## Abstract

## China's Belt and Road 10-Year Evaluation and Forecast: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China and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Jungwon Cho Wonkwa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Chin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that China actively pursued from the beginning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diagnoses China's achievements and problems with the BRI in Central Asia. China is using the BRI as a westward strategy to advance to Russia and Europe through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network connec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sia. Through industrial energy cooperation to build the industrial base, social overhead capital, and energy network necessary for Central Asian countries, China is promoting economic influence in Central Asia and overseas expansion to resolve the overproduction of domestic companies. Except for Turkmenistan, Central Asian countries are using China's capital, technology, and manpower to build 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 and social overhead capital that are insufficient in the country. Kazakhstan, which built its industrial base and social overhead capital through active connection with China from the beginning, has the most business, focusing on manufacturing, agriculture, mining, and energy industries. Uzbekistan is producing results. Tajikistan is focusing on mining an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networks, and Kyrgyzstan is building mining and domestic power networks. Turkmenistan does not rely on China for natural gas development and exports, but has been promoting its development strategy, the revival of the Silk Road,

and connection with the BRI since 2023. Kazakhstan, which is performing the best in China's push for the BRI, ha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the rise of anti-China sentiment in the private sector, and Kyrgyzstan's national debt. However, other countries have not openly raised issues about China's BRI in the private sector due to its strong dictatorship. In the future, Turkmenistan, which accumulated wealth from energy exports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is not expected to rely on China for natural gas exports because it does not prefer the existing supreme leader, Berdimuhamedov, to be economically dependent on certain countries. However, Kazakhstan, Uzbekistan, Tajikistan, and Kyrgyzstan are expect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to expand their domestic industrial base and social overhead capital. Therefore, China can provide the capital and manpower for Kazakhstan, Uzbekistan, Tajikistan, and Kyrgyzstan. China is expected to exert more influence than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Russia in their economic sector.

**Keywords** | China, Central Asia, Industrial Energy Cooperation, Social Overhead Capital, Transportation Logistics Network, Energy Network, Economic Influence

